

E-discovery Case Study & email governance

dalma37

dalma37@gmail.com





1. Introduce Penta Systems

2. E-Discovery 소개

3. E-discovery 사례

4. Email Governance

5. From Email Archiving to e-discovery



▪ Enterprise Solution Vender(1987~)

- Adabas D
- Na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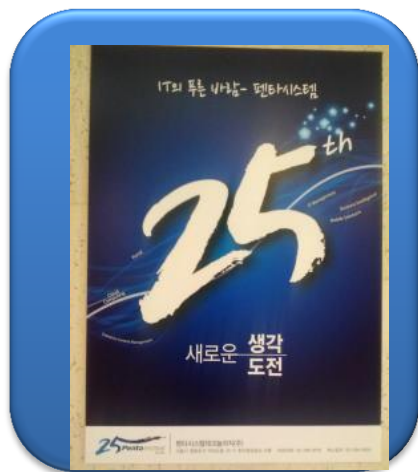
- Tuxedo
- Powerbuilder

- Weblogic
- Websphere
- Wily
- Tivoli

MainFrame

Client-
Ser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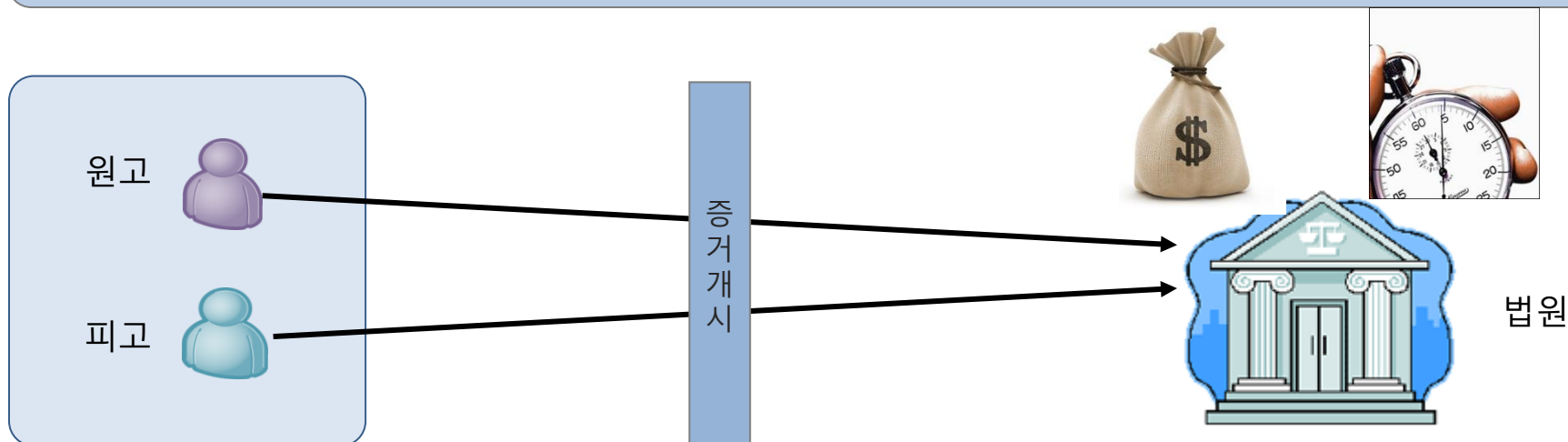
Web



- Documentum/Email Archiving
- Oracle
- IBM
- Penta Security – Damo, Wapples, ISSAC
- BI/Big Data
- Red Hat
- Powerbuilder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디지털증거개시)는 증거개시제도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ESI가 포함되어 발전된 개념(2006년)



- 1938년 연방법원에서 사용되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칙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운영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FRCP(Federation Rule of Civil Procedure, 연방민사소송규칙)를 제정하면서 Discovery 제도 규정
- Discovery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 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 전의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
-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소송의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절차
- 과도한 요구는 취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명령
- 진술녹취서, 질문서, 문서/물건, 신체/정신 검사, 자백요구
- 증거개시동안 분쟁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소송과 관련한 임의의 정보를 요청할 권리

- 특허괴물과 유사(Patent troll), 인텔렉추얼벤처스 5조원의 자금 운영
-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 소송전에 복잡하고 다양한 증거개시 요구
- 2006년 기준 건당 150만 달러 소요
- 120일 안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에서 연관성찾아 추출 어려움

→ e-discovery 솔루션이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이용

주요 '특허 괴물' 기업들 현황

이름	활동 분야	내용
인텔렉추얼 벤처스	컴퓨터 등 IT 전분야에서 특허 2만 건	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펀드에 참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
인터디지털	휴대폰 분야 특허 4200건	1972년 설립 이후, 휴대폰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특허 소송 제기. 노키아·삼성전자·사프 등에서 로열티 수입.
NPT	휴대폰 이메일 관련 특허	1992년 설립. 노키아, 림(RIM) 등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로열티 수익.
포젠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게서 로열티 수입. 델컴퓨터를 포함한 40여 PC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 중.
아카시아 리서치	바이오칩 등 생명공학 분야 특허	노키아·월트디즈니 등과 라이선스 협약 체결
시스벨	음원 관리 관련 특허	MP3 등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정이전의 e-discovery 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방사건판례로 혁신적인 4가지 판례

1.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
2. 원고의 고소가 합리적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ESI에 대한 보존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전자자료를 삭제 및 훼손
3. 백업 테이프에서 관련 이메일 복구가 기술적, 비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

이 판결로 FRCP 개정안에 내용

1. 문서 재정의 : ESI 추가(유형, 무형) 문서의 정의는 미완결로 남둠
2. 강화된 공개 요구사항 : 소송에 앞서 당사자들이 공개하도록 요구
3. 이원제 ESI : 일원(쉽게 접근 가능한 ESI), 이원(접근할 수 없는 소스의 ESI)
4. 처벌에 대한 제한 : 현저한 부주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통해 ESI를 보존하지 못한 당사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

➔ e-discovery 제도란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ESI를 대상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대상도 데스크톱, 랩톱, 스마트폰 모든 형태의 서버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10516204103974>



- Hynix 와 미국 램버스 사의 특허권 소송
- 2011년 5월에 Hynix 승소
- 이 판결로 **Hynix 는 2010년 순수익의 1/5인 4,000억 절약**
- CNBC : "법원에 따르면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관련된 9만~1만8천 파운드에 달하는 자료를 파기했습니다."
- 램버스의 주기적인 자료파기를 불법행위로 간주**
- 이로써 11년간의 법적 공방이 끝남.





- 2001년 9월 13일 캐나다의 소송 제기
- 삼성전자는 심의단계에서 서류 미제출과 관련된 EMAIL 증거자료 파기
- 2004년 말, New Jersey 법원은 Email 미제출 등의 이유로 56만 달러 벌금 부과
- 모자이드사의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내부 이메일과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힘





- 2005년 미국법원은 Morgan Stanley사가 증거(이메일)을 고의로 훼손해서 sunbeam사의 투자자들을 속인 증거로 추정하여 벌금 부과 : 15억 달러(1조 7억원)
- SEC 의무 보존기간이 24개월인데 12개월 만에 이메일을 삭제함
- 주법원은 모건스탠리에 사기에 대한 혐의 대신 모건스탠리가 10년 가까이 이메일을 포함한 대량 정보를 관리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
- 이제 법원이 요구하는 정보를 단순히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하는 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것
- 이번 판례는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의 기업들에게 기업 데이터 관리에 투자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계기
- 이메일을 비롯한 기업정보를 체계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연속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

Morgan Stanley



- 필립 M.아담스와 아수스=필립 M.아담스(이하 아담스)는 2009년 3월 자사가 보유한 플로피 디스크 결함 발견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수스가 도용건으로 소송
- 아담스는 아수스가 핵심적인 증거를 파괴했다고 주장
- 아수스는 당시 이메일 서버가 아카이빙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임직원들은 장기간 보존해야 할 이메일은 PC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
- 법정은 문서와 이메일을 포함한 데이터를 성실히 제출한 측인 아담스의 손을 들어줬다.





- 퀄컴은 브로드콤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관련 이메일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850만달러의 벌금
- 2005년 브로드콤과 퀄컴간 일어난 기술 특허 분쟁에서 **퀄컴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제출요구**
- 이 E디스커버리 과정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해 퀄컴은 패소는 물론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850만달러를 지불
- 퀄컴의 변호사들은 소송 증거 보존 실패의 책임이 있는데다 소송증거 은닉 행위에 참여했다는 점에 변호사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 오라클은 2008년 노동조합(Nursing Home Pension Fund)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006년말 배포된 래리 엘리슨 CEO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의 요구를 받았으나 결국 실패
- 수시로 작업이 주어지거나 초과 근무가 일상화된 IT 기업들은 '초과근무지급예외'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오라클이 4만여 임직원 중 단 30명에게만 고지했음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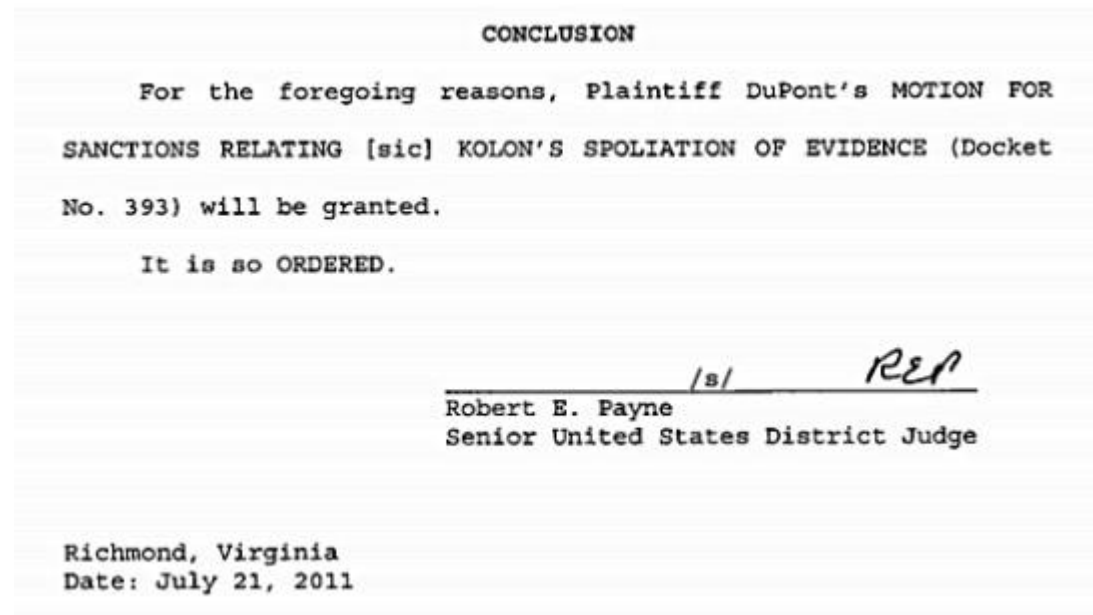




-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특허침해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진 결정적 이유는 **구글이 삼성에게 보낸 e메일**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67)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삼성이 실제로 모방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었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곳이 증거 속에 있단 것을 알았다"며 **2010년 삼성의 내부 e메일을 거론**
- 그는 "배심원들은 구글이 삼성에 애플 디자인을 피하라고 말하는 메모를 봤을 때" 그 메모가 증거의 역할을 했으며, "삼성전자 고위급 경영진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실제로 모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단언
- 이 e메일은 2010년 2월15일 구글과 회의한 한 삼성전자 선임 디자이너의 논평을 삼성 내부에서 회람하기 위해 발송된 것이다. 그 e메일은 삼성의 태블릿 PC 한 모델을 언급하면서 "애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두드러지게 다르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담음
- 또 다른 e메일은 그해 2월22일에 삼성 직원 30여 명에게 보내진 것으로 "(갤럭시)S 시리즈의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 e메일은 "구글이 아이패드와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각 통신사와 구글의 요구를 감안해 디자인 구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



-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로우(LAW)360은 지난해 7월 22일 기사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했고 그 때문에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
- 코오롱이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
- 통상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다. 코오롱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코오롱은 총 1만 7811개의 Email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LG 소송일지

※ 일시는 2012년

- 12월26일 LG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기술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 12월7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관련 특허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 11월12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제기
- 9월27일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관련 특허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 9월24일 LG전자,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측정 동영상에 대해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 9월3일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21종과 세부 기술 18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메일을 자사 기준 또는 법적 불리를 판단하여 임의 삭제하거나 보존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 분쟁에서 패소 사유와 더불어 가중된 처벌을 받고 있음.

1. 삼성VS 애플-싱글 메일 자동 삭제 기능 불리하게 적용
2. 하이닉스VS 램버스 :램버스 메일 삭제로 하이닉스 승소,
3. 코오롱 VS 듀폰 : 코오롱 메일삭제로 가중 처벌

메일 삭제 시 법적 불리 적용 기준>

의제자백(불리한 추정,)

의제자백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특히 증거를 파괴했을 경우 해당 증거가 파괴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한다.(법률용어)



- 회사에서 필요한 EMA 아키텍처와 필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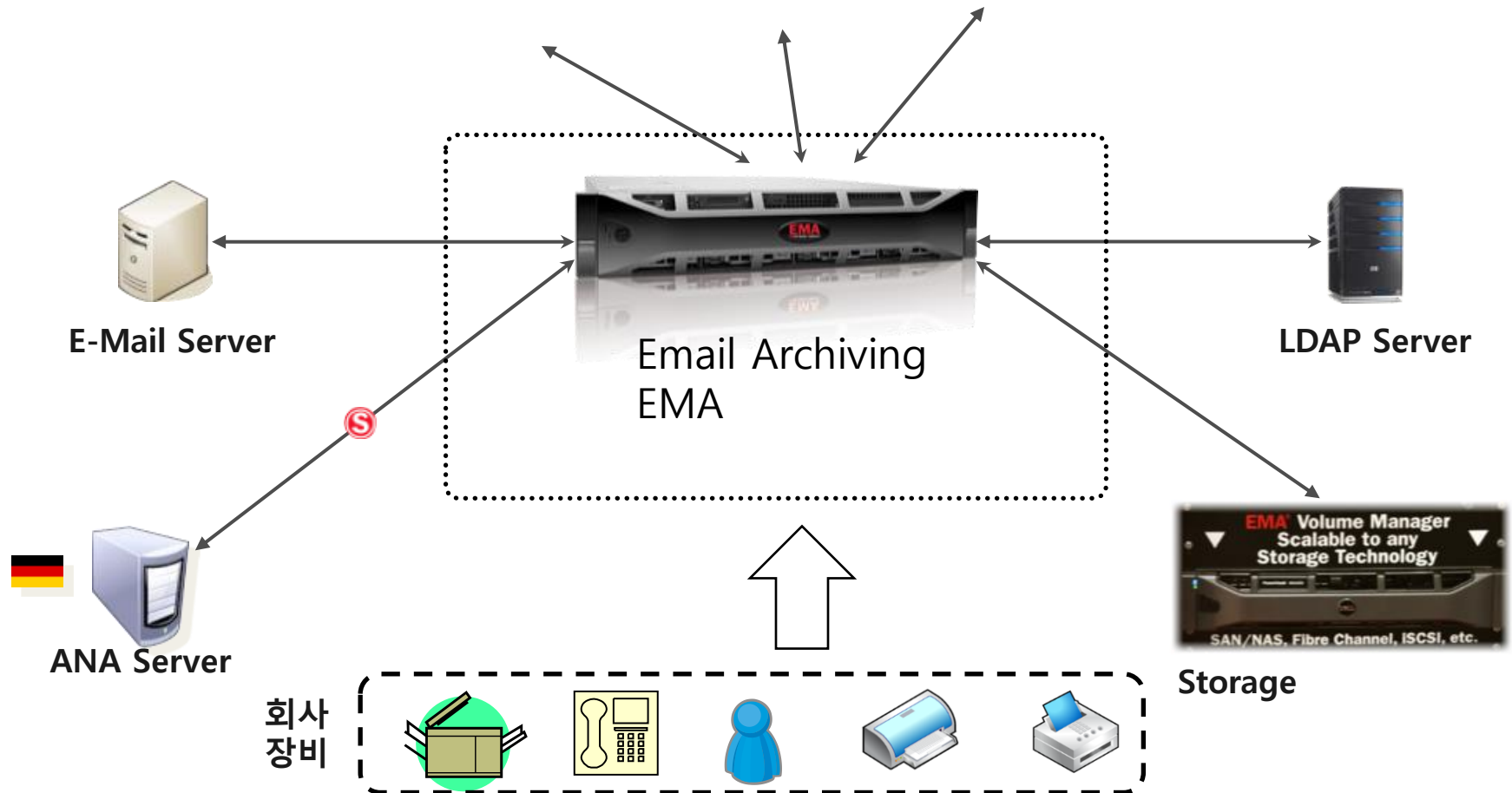
관리자



일반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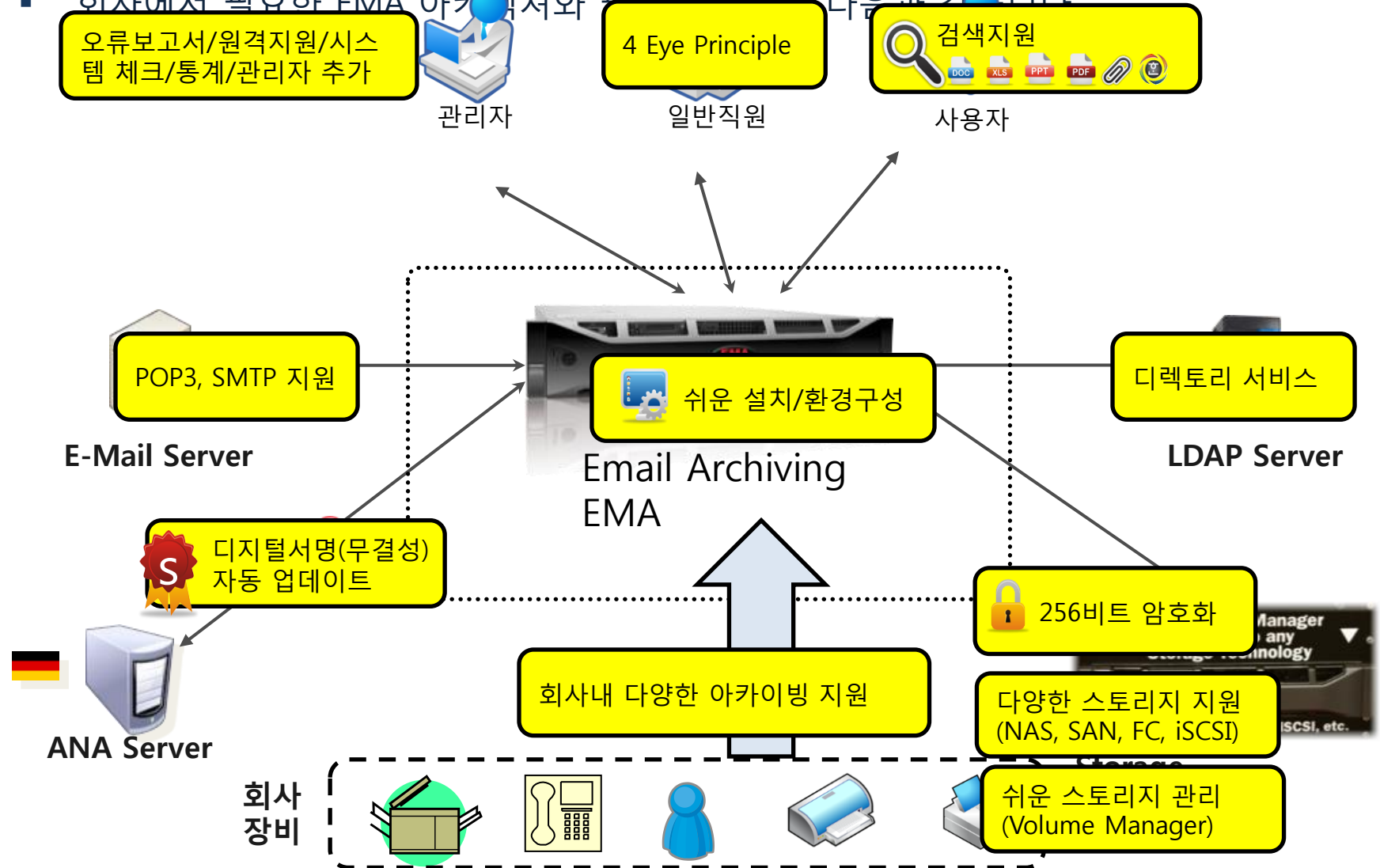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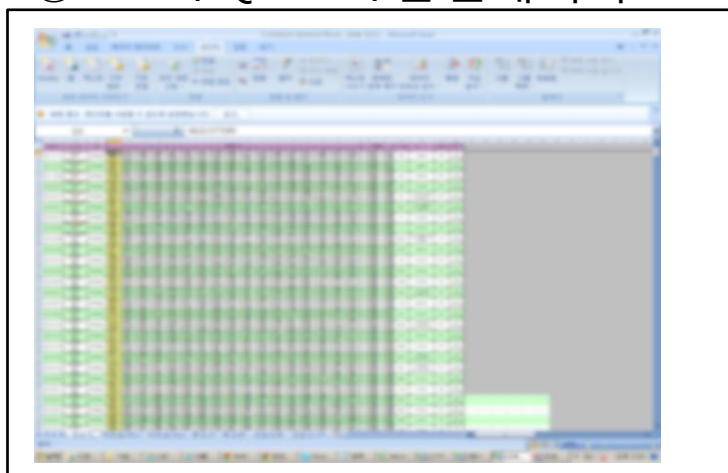
- 회사에서 필요한 FMA 아키텍처와 필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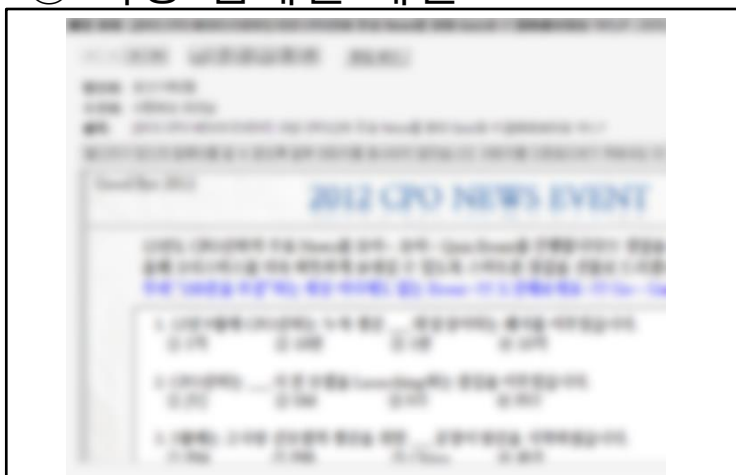
① 광고메일 필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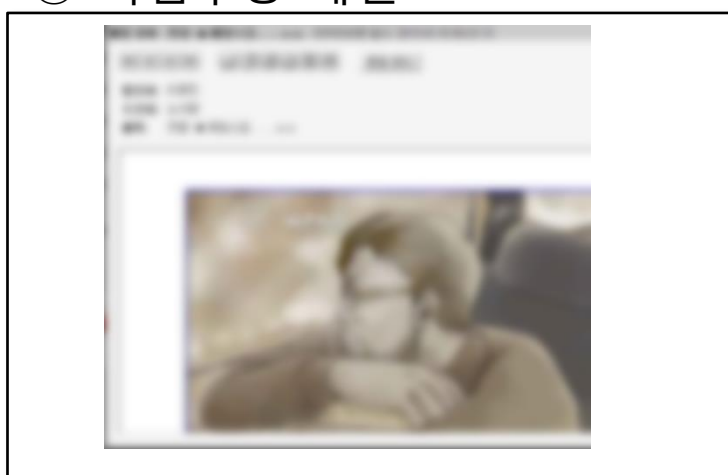
② Data/Q-Data/품질데이터



③ 각종 캠페인 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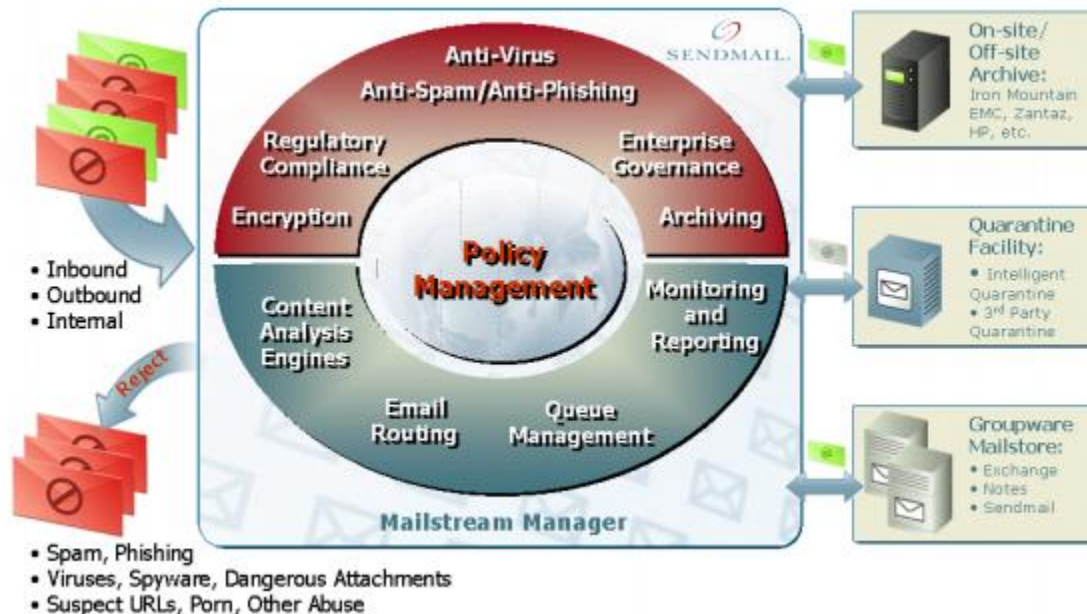
④ 비업무용 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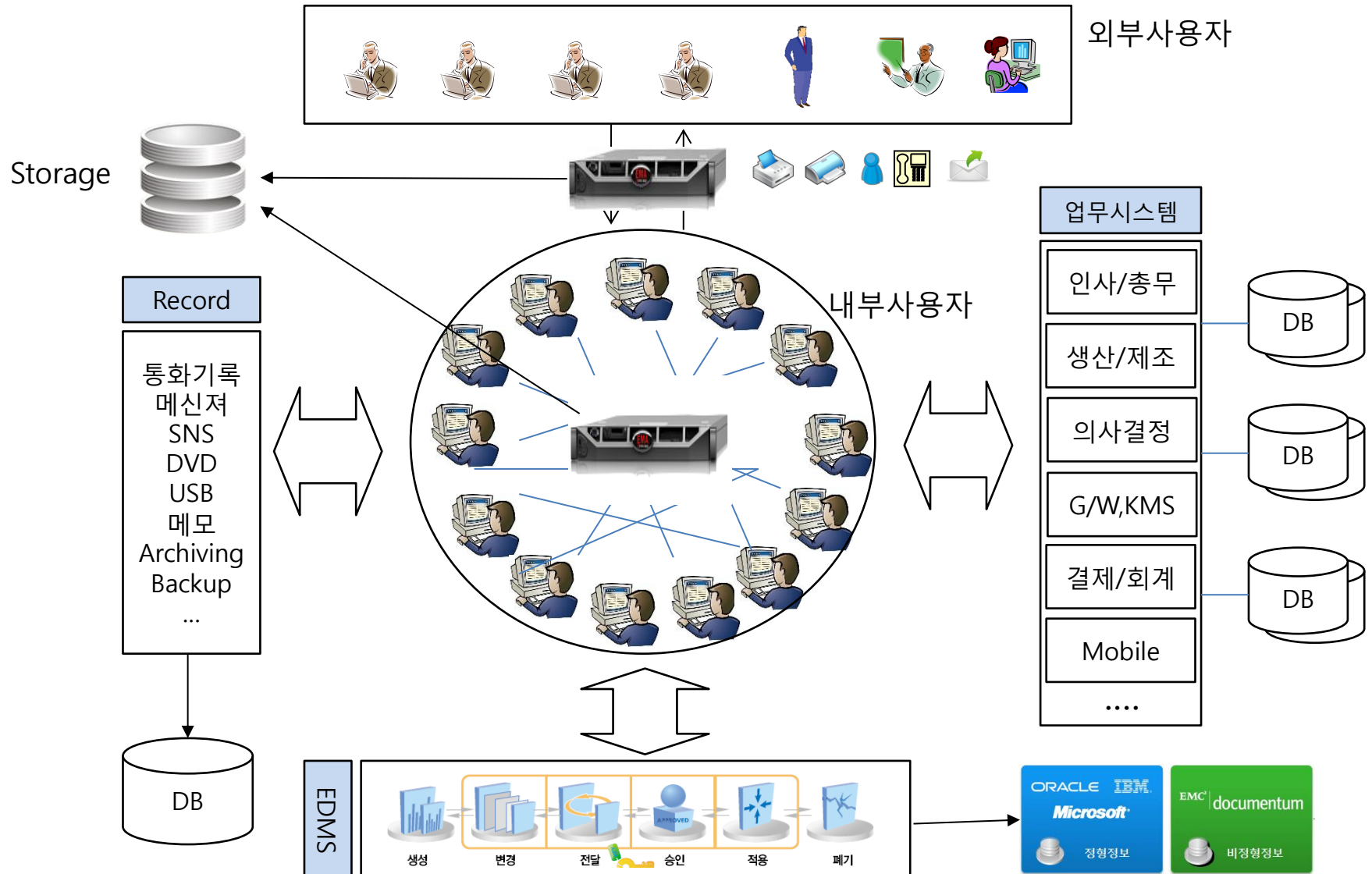
⑤ 송수신 주소, 회신주소, 제목 태그, 용어사용 등 규칙 부재

사내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보안, 컴플라이언스, 비용, 위험감소, 사용성 증가 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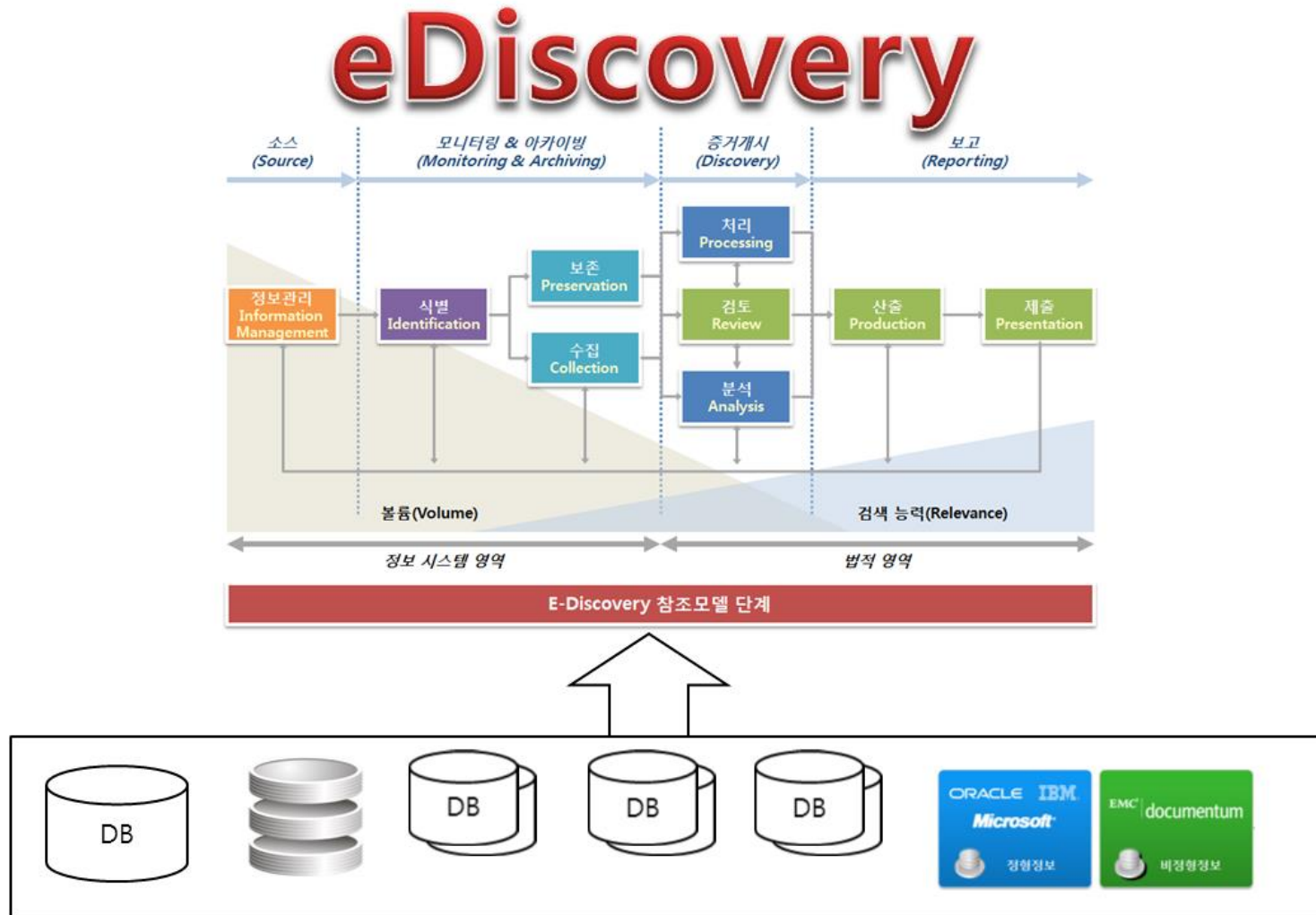
1. 외부 공격에 대한 대비
2. 내부자원절약
3.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비
4. 보안강화
5. E-discovery에 대한 준비



- Email Archiving은 향후 E-discovery로 확대 발전할 수 있습니다.



- Email Archiving은 향후 E-discovery로 확대 발전할 수 있습니다.





- BYON(Bring Your Own Network) 허용여부
- Social SNS 처리방법

